

상월결사 3주년을 맞아 11월 11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법회'에서 봉은사 국악합창단 156명이 흰 영가등을 들고 조가 '무상게'를 합창하고 있다.

"중생 고통 함께 보듬는 게 상월결사 정신"

상월결사 3주년 맞아 '이태원 참사' 추모법회 11월 11일 봉행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문전옥탑 있다 해도 너하고야 바꿀쏘냐. 애지중지 키웠는데 거리 중에 참사라니 원통하고 통분하다. 이를 어찌 할꼬. 불쌍하고 가련하다."

지난 10월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에 전하는 등환 스님의 '화청'이 애절하고 구슬프게 봉은사 경내를 채웠다. 애닯은 심정에 사부대중들은 이내 연신 눈물을 훔쳤다.

세속으로 내려와 위례신도시 천막법당에서 정진하며 시작된 상월결사의 3주년이었지만, 세상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에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있다.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와 추모법회를 봉행하는 것이 상월결사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라며 3주년 기념행사를 추모법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11월 11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법회'에는 자승 스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한 1만여 사부대중이 경내 미륵광장에 운집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정진석 국민의힘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윤성이 동국대 총장, 구태서 현대불교신문 대표 등이 자리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간절한 참회와 발원의 마음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참회의 참(懺)이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悔)란 다음에 오기 쉬운 허물을 아주 끊어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라며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데 그친다면 참회가 아니다. 참회는 눈물과 땀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간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연법의 깊은 속을 헤아릴 줄 아는 뉘우침과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의 참회"라고 설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과 무사안일이 쌓이고 쌓여서, 이토록 커다란 슬픔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경책한 자승 스님은 "구태와 관습에 안주하려는 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제대로 뉘우쳐야 올바로 발원할 수 있듯이, 수행정진이 일상화되고 신행생활이 체질화 된다면 사바세계가 곧 수미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다.

봉은사에 1만여 사부대중 운집

여야 대표 등 정치인 대거 참석

자승스님 "간절해야 참회" 경책

위령의식, 조가 등 희생자 기려

주요 내빈들의 추모사도 이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상월결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사회적으로 큰 희생이 발생한 이후에도 되풀이되는 안전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약속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세상이 어두울 때는 우리가 빛이 되어주고 부처님의 소리를 들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면서 "상월결사의 정신은 바로 이와 같으며, 오늘 함께하는 추모와 애도의 자리와 다르지 않다. 상월 정진은 중생의 고통 곁에 서있으며, 중생의 손을 맞잡고 사회 현장에 서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종단은 상월결사와 함께 나가겠다. 중생의 벗이 돼 세상과 함께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해 나아갈 것"이라며 "부처님의 생을 따라 인도 순례길에서 뭇 생명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회주 스님의 말씀과 같이 전법포교의 한걸음이 국가의 번영과 불교중흥의 공익임을 실천해 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은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더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다"면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사회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과 사회의 책무에 방만하지 않도록 냉철해야 한다. 정진은 나만의 정진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도 추모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대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회한을 마음에 묻고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진정한 애도는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회 참석 사부대중은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희생자들께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꿈들이 우리 곁에 아직도 그대로"라며 "이러한 꿈들을 우리가 활짝 피워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모법회는 희생 영가에 대한 위령의식과 살풀이가 진행됐으며, 봉은사 국악합창단 156명이 하얀 연등을 들고 '무상게'를 조사로 합창하며 마무리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법회서 인묵 스님 등이 위령의식을 하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법회'서 사부대중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추모법회에서 정치계 인사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